

2021

제주 공공미술 가이드라인(안)

제주 공공미술
가이드라인(안)

I 가이드라인(안)의 개요	4
1. 정의	7
2. 목적 및 내용	7
II 공공미술이란?	10
1. 공공미술의 정의	13
2. 공공성의 정의	14
3. 공공미술의 기능	17
4. 공공미술의 선정 유형	19
1) 공모	24
2) 기획	24
III. 기획 및 제작	25
1. 기획 및 제작 과정	27
1) 기획 및 제작 프로세스	27
2) 설치 신청 과정	30
3) 필요서류	31
2. 제작 시 고려사항	33
1) 크기	33
2) 주제(Themes)	33
3) 지역사회참여	35
4) 생애주기	36

IV. 유지 관리	43
1. 관리 및 정비 과정	45
2. 현장조사	47
1) 조사 목적	47
2) 조사 구성	47
3) 조사 절차 및 내용	48
3. 작품 유지보수	49
1) 정비 체계	49
2) 관리 책임 주체 및 내용	51
3) 보존/복원 우선순위	51

V. 철거	54
1. 원칙	57
1) 철거 정책	57
2) 철거 기준	58
2. 과정	58
1) 철거 과정	58
2) 철거 방법	59

가이드라인(안)의 개요

1. 정의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2021.7.9. 일부 개정)를 통해 공공미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공공미술 설치, 관리, 철거 시 가이드라인(안)을 참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 본 가이드라인(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21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공공미술연구팀이 개발한 것이다.
- ‘제주 공공미술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안))’은 공공미술의 특성을 고려한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안한다. 공공미술을 제작하고자 하는 신청자, 창작자 그리고 관리 담당자 등이 이 가이드라인(안)을 참고할 수 있다.

2. 목적 및 내용

- 본 가이드라인(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 첫째,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와 관리 책임 의식을 강화한다.

- 둘째, 제주 공공미술의 질적 성장을 위해 공공미술의 기획, 제작 그리고 유지관리 방향성을 제시한다.
- 셋째, 제주 공공미술의 통합 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한다.

- 이 가이드라인(안)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 공공미술의 정의
- 공공미술 기획 및 제작 프로세스
- 공공미술 기획 및 제작 시 고려사항
- 공공미술 유지 관리 프로세스
- 공공미술 유지 관리 시 고려사항
- 공공미술의 철거

공공미술 이란?

1. 공공미술의 정의

- 공공미술Public Art의 개념은 1967년 존 윌레트John Willett의 ‘도시 속 예술Art in a City’에서 그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는 중요한 예술의 한 분야이다.
- 공공미술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 또는 전시되는 예술품’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지만 그에 대한 정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 최근의 공공미술은 ‘다수의 사회구성원의 공적 관심사와 공적인 유용성을 공적인 공공의 영역에서 미술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공공미술은 미술관이나 갤러리와 같은 예술전문공간에서 향유되던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적인 장소에 설치되어 공공의 이익과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2. 공공성의 정의

- 공공미술은 ‘공공Public’이라는 단어와 ‘예술Art’이라는 단어로 구성된 복합명사로, ‘공공성’에 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공공성公共性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공공성에 대한 정의 또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는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한 개방성과도 관계된다.
- ‘공공성’의 기준에는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 장소 개방성: 작품 설치 장소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를 말한다. 전통적 공공미술에서의 ‘공공장소’는 작품이 놓이는 물리적 장소로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공공미술에 대한 정의가 변화하면서 최근 ‘공공장소’는 특정 장소를 넘어 공공성을 띠며, 공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한 소통의 장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 대중의 참여: 공공미술이 효과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참여를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정서적 소통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좁게는 대중이 작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넓게는 대중의 관심사나 반응을 공공미술 작품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의 관심이나 이익을 바탕으로 한 미술은 행동주의에 입각한 실천적인 미술로 확장될 수 있다.
 - 지역 정체성: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지역에만 있거나 그 지역민에게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유의 성질을 의미한다. 지

제주 공공미술 사례 1

송필, 실크로드-바람길

서귀포시 서귀동 70-1, 자구리 문화예술 공원 일대



제주 서귀포 자구리 문화예술 공원은 바로 바다에 인접하여 많은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자연의 일부를 한 동물 형상의 작품은 멀리 바다의 수평선과 함께 수직의 구축적 형태를 만나게 하는 특별한 광경을 만든다. 작가의 표현적 특성이 공원의 평화로운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오가는 시민들의 친근한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게 한다. 2012년 마을 미술프로젝트로 조성된 여러 작품들 가운데 제주의 풍경과 시민의 시선이 평화롭게 만나는 지점이 되고 있다.

제주 공공미술 사례 2

이승수, 법환포구 좁녀 물고기 조형물

서귀포시 법환동 163-9 일대(법환포구 좁녀광장일대)



제주도의 상징성을 담보한 공공미술 사례다. 법환마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이 작업은 제주의 역사와 장소적 가치가 작품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법환마을은 제주에서 해녀가 가장 많은 곳으로 2003년 문체부의 문화역사마을로 선정된 것과 이후 문화 역사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마을 조성이 이루어진 배경을 갖고 있다. 바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이 작품은 제주의 역사와 풍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와 지나치게 크지 않아 친근하게 대중이 마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작가의 사실적인 해녀 조각상은 단조로 만들어져 시간을 통해 견고한 느낌을 재현하고 있고, 그물 형태의 물고기 형상이 이를 둘러싸고 있어서 중앙의 해녀를 보호하고 있는 듯 보인다. 지역의 정체성을 조각으로 네러티브화한 사례다.

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미술은 지역의 맥락에서 공동체의 역사와 기억을 환기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3. 공공미술의 기능

- 공공미술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일상 속 미술 향유 증대: 공공미술은 다른 예술의 형태와 달리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던 미술작품을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미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행위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공공미술로 기능할 수 있다.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둘러싼 공동체의 소통과 대화의 장소로 기능 할 수 있다.
- 도시 환경 개선: 도시공간을 장식하거나 풍요롭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설치되기도 한다.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에 가치를 더하고 지역의 특색을 지닌 장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은 공공의 의미와 자긍심을 환기하는 장소로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구축하는 것에 기여

할 수 있다.

- 지역 이미지 개선 및 활성화: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의 기존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지역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간혹 공공미술을 통해 지역이 명소화 되어 관광객이 유입되어 활성화된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공공미술의 경제적 가치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공공미술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 공동체 가치 환기: 특정 장소를 위해 만들어진 공공미술은 역사의 층위를 탐색하고 전통이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그 장소와 연결되고 소속되어 있다는 공동체 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미술은 단순히 공동체를 위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접근할 수 있다.
- 예술가 일거리 창출: 1930년대 경제적 공황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한 것을 공공미술의 시작점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처럼 공공미술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예술가들에게 일거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창작자뿐 아니라 큐레이터, 퍼실리테이터, 디자이너, 건축가, 조경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문화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자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제주의 문화 가치들은 공공미술에 의해 직접적인 경험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지역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는 제주도 내 문화사업 및 문화공동체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도시 브랜딩을 강화할 수 있다.

4. 공공미술의 선정 유형

1) 공모

- 공공미술 프로젝트 혹은 작품을 공개 모집하는 형태이다. 기획자 혹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업이 프로젝트에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① 공개 모집 [open call](#)

- 자격이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한 방법이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이다.
- 공개 모집은 응모 및 접수 기간이 충분하고, 많은 응모자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호된다.
- 기획자 혹은 창작자에게 과거 프로젝트 수행 이력과 같은 자격이 요구될 수 있다. 작가 및 프로젝트 선정은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제주 공공미술 사례 3

조성묵, communication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길 15 기당미술관 야외 (서홍동 621)



한국현대조각의 거장 고 조성묵의 작업이 제주의 공공미술의 하나로 자리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2014 예술의섬프로젝트 국제공공미술심포지엄의 작가로 참여하여 현재 기당미술관 입구 아크릴 공간에 이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작가 고유의 언어인 의자 모티프와 제주의 자연석 그리고 국수모양이 어우러진 야외 설치 작업이다. 작품의 조형성과 제주의 풍경이 하나되는 특별한 이 작업은 투명 아크릴에 의해 보존되면서도 관람되는 특징을 보인다. 제주 자연 생태계의 순환을 나타낸 작품으로, 조성묵 작가 특유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의자와 기다란 국수가락들은 모든 관계와 대화하고 교감하면서 소통을 시도하는 의미를 포함한다. 조성묵 작업의 후기에 등장했던 국수 작업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그에 따르면 국수가락은 서민적 삶의 기호인 동시에 몽환적 비실재감을 위한 시지각적 대상이다. 제주의 돌과 아크릴, 녹이 나는 듯 보이는 의자와 국수는 제주의 자연 생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작가의 예술적 의도와 제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재료를 사용하여 예술성과 제주의 로컬리티적 이해가 충분한 드러나는 공공미술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제주 공공미술 사례 4

전종철, 경계선 사이에서

서귀포시 서홍동 649 칠십리 시공원 연못



공공미술이 유연하게 자연과 장소적 가치를 드높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연못을 사이에 두고 두 공간을 이어주는 특별한 게이트인 작품은 센서를 통한 자동 문 개폐와 거울을 통한 다른 시선의 풍경을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인지도 만큼이나 작품성이 뛰어나다. 주변 경관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면서도 자연과 인간 그리고 작품이 서로 호응하는 흥미로운 공공미술의 사례로 자리한다.

제주 공공미술 사례 5

박경훈, 애국기매국기-알뜨르 제로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563(알뜨르비행장 남제주비행장 격납고)



제주의 알뜨르비행장 격납고는 태평양전쟁 당시 군사 기지화되었던 기능적 공간이다. 전투기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어져 대정읍 일대에 10곳이 넘게 남아있다. 주변의 농작물들로 가득한 평지에 격납고가 군데군데 자리를 차지하여 현재는 이것만으로도 특별한 경관을 가지고 있다. 애초에 군사 기지와 대정지역의 농작물 재배가 함께 이루어져 과거의 역사와 일상의 삶의 접점인 의미와 역사성의 지역이다. 2010년 박경훈 작가가 ‘알뜨르에서 아시아를 보다’ 출품작 중의 하나였던 전투기 모형을 2017년 제주에 비엔날레에서 알뜨르 비행기 격납고 안에 실제 크기의 모형 작품을 설치하였다.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예술가가 만난 특별한 장소성을 가진다. 녹슨 철재의 전투기 모형은 자연의 모든 호흡을 그대로 수용하며, 역사적 시간과 동시대적 풍경을 만들고 있다. 이미 예술가의 시선을 통해 재현된 역사성과 장소적 가치를 공존시킨 알뜨르 비행기 격납고의 작품은 공공의 기념비적 역사성이 만나 로컬리티와 예술성의 독해로 이끈다.

② 제한 경쟁 **limited call out**

-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미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한된 기획자 및 창작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 기획자와 창작자는 과거 자신이 추진했던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를 통해 특정 유형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 지역 미술의 육성을 위해 지역 기획자 및 창작자를 우선 순위로 두는 경우, 매우 구체적인 커미션(조명, 인터랙티브 등)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사업 추진 기간이 짧은 경우에 제한 경쟁을 고려할 수 있다.

2) 기획

-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나 기간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매우 구체적이며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창작자의 작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공 자금에서 선호하는 경쟁 과정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미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III.○

기획
및
제작

I. 기획 및 제작 과정

1) 기획 및 제작 프로세스

- 공공미술을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의 단계를 참고할 수 있다.

구분	단계	내용
기획 단계	1 전체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서 및 기관 기획안 수립 - 공모, 기획 등을 통한 제안 접수 - 예산 확보 - 설치 장소 선정
	2 사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분석 및 설치 타당성 조사 • 전문가, 주민 의견 청취
	3 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유지보수 및 주변 환경 정비 계획, 생애주기(작품 보존 기간), 유지보수 예산 조달 계획, 활용 계획 등 • 작가 선정 및 추진협의체 구성 (주민 등)

설치 단계	4	설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부서에 설치 신청 - 2) 설치신청 과정 참고
	5	심의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주변 장애물 현황 검토 -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 심의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인·허가 여부 통지 •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이의신청은 1회로 제한)
설치	6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작품 설치 계약 체결 (기관-작가/대행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소유와 저작권 (사후 관리를 위한 저작권자 동의 포함), 작품 제작과 설치 기한, 작품 보존 기간, 사후 정비 보증기간(A/S) 및 정비·이전·철거 관련 조항 • 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서 (홈페이지 업로드 및 홍보)
	7	작품 제작 및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과정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과정에 대한 사진, 영상, 메모, 스케치, 도면 등 • 작품 설명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설명, 작가명, 제작연도, 규격, 재료, 관리기관, 고유관리번호

	8	설치 확인 및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작품 설치(준공) 보고 확인 및 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안전 상태 확인 (작품의 구조 안전 진단이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서 제출) - 공공미술 관리(설치신고)대장 제출 • 작품 관리 카드 작성 및 작품 정보 홈페이지 등록 (사전에 작가의 저작물 이용 동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타 부서(기관)에서 설치되는 공공미술작품의 경우, 신고제 혹은 등록제를 통해 작품 등록
정보 기입 단계	9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번호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정보와 고유 번호가 기재됨.
	10	설명자료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설명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설명, 작가명, 제작연도, 규격, 재료, 관리기관, 고유 관리번호
문서화 단계	11	프로젝트 문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관련 총괄 아카이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제작 의도, 재료정보 (필요한 재료와 재료 샘플 포함), 제조, 설치(제거 가이드라인(안) 포함) 등 상세 정보 - 장기적인 보존과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 - 향후 작품에 대한 장기적인 학문적, 이론의 토대를 제공함

표 1 제작 및 설치 과정

2) 설치 신청 과정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21호)」에서는 ‘공공미술 설치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 공공미술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부서(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 주관부서에서는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주체에게 설치 인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설치 주체는 공공미술 작품 설치를 완료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한다.
- 주관부서는 설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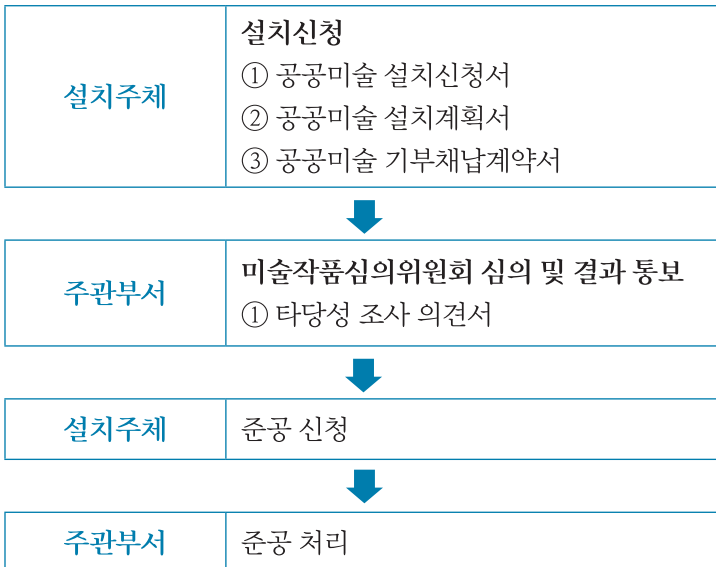


표 2 설치 신청 과정

3) 필요서류

- 공공미술 작품을 제작하고 설치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임의서식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계약서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미술작품이 설치되고 제작되므로, 상황에 맞게 계약 내용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시 계약서'와 '제작 계약서'를 참고하여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들을 반영해야한다.

단계	양식	문서주체	비고	
1	설치 신청	공공미술 설치 신청서	도 문화정책과 제5조 1항	
2	작가 선정 및 계약	공공미술작품 사업(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임의서식	
		공공미술 기부채납 계약서	도 문화정책과 제5조 1항	
		장소(부지)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제3조 2항
		공공미술작품 설치 계약서 (기관-작가/대행인) 1. 사후 정비 및 보수 보증기간 명시 2. 철거, 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저작권자 동의 3. 작품 제작과 설치 기한 4. 작품 보존 기간(생애주기)	임의서식	
		작가 소개서(경력서)	임의서식	

3	작품 계획 수립	공공미술 설치 계획서	도 문화정책과	제5조 1항
		공공미술 사후관리 계획서	도 문화정책과	제13조
4	심의 신청 및 심의	공공미술작품 (변경, 이전) 심의신청서	도 문화정책과	제10조 제13조4항
		공공미술 설치계획 심의도서	임의서식	제10조
		공공미술 설치타당성 조사의견서	도 문화정책과	제11조2항
		주민 동의서	임의서식	제11조
		심의 채점표 (예술성, 창의성, 공공성, 실행가능성, 가격적정성)	도 문화정책과	제10조
5	설치 및 설치 확인	공공미술 관리(설치신고) 대장	도 문화정책과	제13조1항 (신고제 도입 시)
		미술작품 조사 결과서	임의서식	
		미술작품 설치(준공) 확인 보고서	임의서식	

표 3 제작 및 설치시 필요서류 목록

2. 제작 시 고려사항

1) 크기

- 공공미술 작품의 규모를 통해 중요도와 영향력과 비용을 유추할 수 있다. 크기는 공공미술 작품이 주는 감각이나 의미를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미술 설치 목적과 주제, 설치 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설치되어야 한다.

① 대형 major-scale

- 도시 전체의 랜드마크로 인식
- 더 넓은(보다 추상적인) 주제를 포함 할 수 있음
- 작품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장소 선정이 필요함

② 소형, 중형 small-medium scale

- 평균 사람의 신장보다 큼
- 특정 주제나 특정 장소와 관련될 수 있음
- 예술가가 주도하는 커뮤니티 아트 등 소규모의 작업을 포함할 수 있음

2) 주제 Themes

- 예술가들이 다룰 수 있는 지역의 잠재적인 주제는 다양하며, 공공미술을 통해 지역의 문화는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제주 공공미술 사례 6

카스트 솔라노, 삶의 경로에서의 성장

서귀포시 서홍동 576-9 칠십리 공원 내 솜반천



2014년 예술의 섬 프로젝트에 참여한 카스트 솔라노의 작품이다. 칠십리 공원 내 조성되어 주변의 자연 경관과도 잘 어울리는 공공미술이다. 특히 제주도 선조들의 풍습과 역사로부터 이어진 현재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제작한 작품의 주제 의식이 간명하고 개성있게 드러난다. 조형물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데, 다만 대체로 양호한 상태로 있지만, 강풍으로 인해 가장 높은 조형물이 쓰러져 일부 절삭하고 쓰러진 조형물이 자리를 이동해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다. 기본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할 때 아래 토대를 만들어 고정성을 유지하게 하지만, 강풍이라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 현재 스틸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조형물은 표면은 깨끗하게 유지되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므로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지역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공공미술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역사 분야

: <http://www.jeju.go.kr/culture/index.htm>

- 제주의 공공미술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역사 : 제주 4.3, 일제강점기 등
 - 자연/생태 : 바다, 돌, 나무 등
 - 공동체 의식 : 평화, 평등 등
 - 신화 : 설문대할망, 오백장군, 영등할망 등
 - 생활사 : 해녀, 돌하르방, 방사탑, 일상풍경, 생활모습 등

3) 지역사회참여

- 공공미술이 효과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참여를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정서적 소통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 지역 공동체의 참여

- 최근 불거지는 공공미술의 이슈들은 작품을 창작하는 자와 수용하는 자의 관계로 인한 문제에서 발생한다. 공공미술은 예술성과 더불어 공공성을 지닌 장르로서 작품이 설치되는

제주 공공미술 사례 7

육군 제26사단 발상탑(주먹탑)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824-12(농남못 인근)



이 주먹탑에 대한 전거는 제주의 대정 상모리에서 1953년 9월 준장 최홍희를 사단장으로 하는 제29사단이 창설된 것과 관계된다. 이 부대는 우리나라 군사상 처음으로 전통무술인 태권도를 보급함으로써 상모리는 일약 태권도의 발상지로 등장하였다. 발상탑은 높이 5.5m, 둘레 14.4m 규모의 삼면의 탑으로 상모리 2824-12번지에 세워졌으며 3면에는 強健한 體力, 徹底한 訓練, 滿滿한 鬪志가 음각되어 있다. 제29사단은 1954년 6월 양양으로 이동하였다. 발상탑은 1985년 누군가에 의해 3등분으로 훼손되어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대정지역에 태권도 공원 유치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대정읍 개발협회와 상모리연합청년회가 2000년 11월 2일 상모리 2949-5 일대에서 발굴하였고 이듬해 상모리 농남못 앞에 이설하여 소공원 조성과 함께 복원되었다. 일반적으로 기념비 유형의 전형성을 담보하면서도, 탑의 형식 기저부, 탑신, 상부를 취하며, 이들 부분이 다른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균형잡힌 조형성이나 비례 등이 장식없이 자연적으로 조합되어 수직으로 세워져 군인의 기상과 정신을 잘 드러낸다. 이같은 조형성과 더불어 역사성을 지닌 이 주먹탑은 대정 지역의 육군 발원지이자 태권도 발상지로서의 의미가 있다.

제주 공공미술 사례 8

마우로 스타치올리, 서귀포(seogwipo)

서귀포시 서흥동 566 칠십리 시공원 내



제주의 한라산이 모티프가 된 이탈리아 작가의 공공 조각작품이다. 한라산에 대한 간결한 추상적 표현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 철재 도장의 표면과 붉은 색의 위로 치솟으며 좁아지는 형태감이 산 능선의 한 부분 같기도 하고, 산에 오르는 동안의 경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보이기도 한다. 2014년 예술의 섬 프로젝트 국제공공미술심포지엄을 통해 조성된 작품으로서 스케일이나 예술성에서 공공미술로서의 의미를 풍부히 한다. 제주 한라산의 사실적인 재현을 넘어서 음미되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변 지역을 즐기는 이들에게 예술을 마주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미술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제주 공공미술 사례 9

박건주, 흰파도 검은바위

서귀포시 서홍동 566 칠십리 시공원 내



제주 공공미술 작품 중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서귀포바다를 형상화한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예술의 사례다. 벽화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섯섬, 문섬, 범섬이 포함된 서귀포 바다를 작은 돌을 통해 형상화하였는데, 담백한 수묵화를 연상시킨다. 벽면을 마주하는 주택과 상가에서 편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일상의 장면으로 녹아드는 곳이며, 주민들이 키우는 화초들이 앞에 놓여있는 풍경은 예술, 사람, 삶이 공존하는 공공의 공간으로 인지시킨다. 무엇보다 주변의 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풍경을 소재로 한 측면에서 로컬리티와 예술성의 간단 명료한 공공 미술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수용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소극적 소통을 벗어나 참여 주체로서 도민을 고려한 작품이 제작되어야 하며 도민과의 상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수의 공공미술이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중요시하고 공동체와의 공통된 행동과 실천을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미술을 활용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행위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체 예술 **Community Art**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체는 자신과 관계된 사회적 이슈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미술의 파급력과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미술의 길은 공동체와 함께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플랫폼으로써 공공미술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프로젝트와 관련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역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와 자원 또한 제공할 수 있다.
 - 지역주민과 기획자 및 창작자가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대해 공유한다.
 - 지역 학교, 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이 프로젝트

와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② 지역 예술가의 참여

- 예술성은 공공미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소수의 창작자에 편중하여 공공미술을 설치할 경우 참여 기회에 제한되어 형평성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향유자 또한 제한된 예술적 경험을 하게 된다.
-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또한 공공미술의 목표 중 하나이다. 지역의 젊은 창작자들이 공공의 관심사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예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예술계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 지역 예술가의 경우 체재비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소요 예산의 측면에서도 경제적이다. 소규모 커미션이더라도 이를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창작자 역시 더 큰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는 검증된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생애주기

- 작품이 영구적 존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미술작품의 특성에 맞게 기한을 정해 관리되는 것을 권장한다.
- 작품의 생애주기는 작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 공공미술의 기획단계에서 생애주기가 고려되어야 하며 유

지, 보존, 변경, 처분 등에 있어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한다.

- 단기 : 0~5년 미만
- 중기 : 5~15년 미만
- 장기 : 15~30년 미만

IV.

유지
관리

1. 관리 및 정비 과정

구분	단계	내용
사후관리 및 정비	1 현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내 공공미술 현황자료 확보 - 작품 점검, 작품 현황 자료 및 설문 수집 • 심층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미술의 예술성과 로컬리티 가치 발굴을 위한 자료 수집 - 이해관계자 인터뷰, 작품 관련 자료 수집
	2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 실태조사 (관리기관) - 2~3년마다 전수조사 (전문기구) • 수시점검 : 자연재해, 사고 발생, 민원제기 등 필요시 개별 작품 점검 • 정밀 안전 점검 : 대형작품 등 특별점검이 필요한 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으로 점검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일관된 작품 점검 실시

3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기타시설 (조명, 음향, 전기시설, 조명 등) 관리 - 주변 환경 정비 • 수시관리 :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따른 관리
4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 축제, 아트투어 등 관광 자원으로 활용 • 홈페이지 활용 도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공공미술 간행물 제작 • 공공미술 활용 문화 프로그램 지원
5	유지보수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실시 - 건 · 습식청소 - 광택 및 도색, 시설물 보수 등 • 수시보수 : 자연재해, 사고 발생, 민원제기 등 필요하면 보수 실시 •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진과 영상 등으로 과정을 기록
6	변경 및 이전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설치 기간 종료(작품 생애주기), 작품 파손, 철거 제안 등 공공미술의 이전, 교체, 해체 또는 철거 사유 발생 시 총괄부서에 이를 알리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철거 · 보존 검토, 타기관 기증, 보관, 재배치, 파기 등)에 따라 조치 • 과정 기록 (사진, 영상, 메모, 스케치, 도면 등)

표 4 관리 및 정비 과정

2. 현장조사

1) 조사 목적

- 현장조사는 성격에 따라 기초 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 기초 조사는 제주도내 공공미술작품의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로 작품 점검, 작품 현황 관련한 자료, 작품에 관한 설문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심층 조사는 지역의 정체성과 예술성의 측면에서 가치 발굴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작품관련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 현장조사를 통해 예술가(제작자), 지역주민 및 이용자, 관리자 등의 직·간접적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2) 조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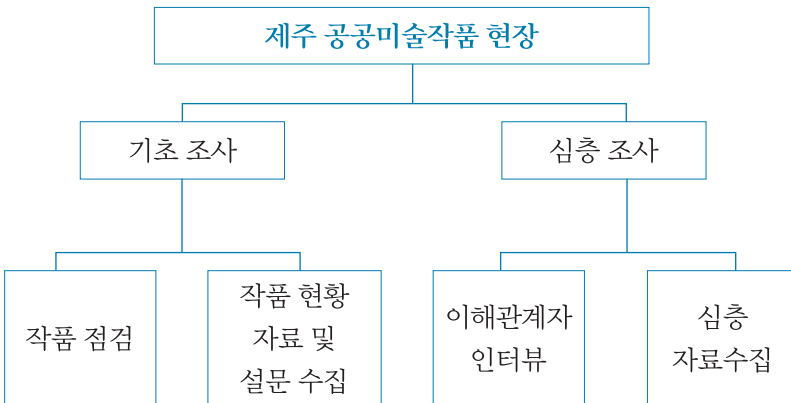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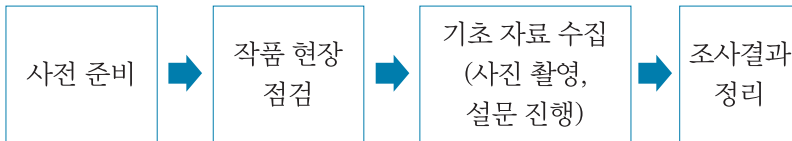


표 5 조사 체계도

3) 조사 절차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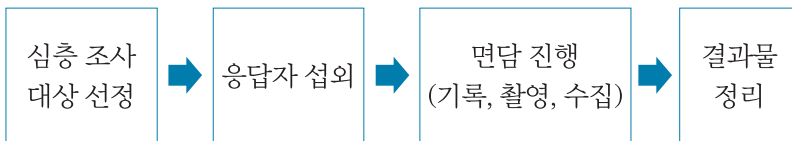
① 기초 조사

- 제주도 내 공공미술작품의 변동사항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1차 자료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 단순 작품 점검에서 더 나아가 제주 공공미술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기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제주공공미술의 예술성과 로컬리티에 관한 분석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심층 조사

- 기초조사된 작품 중 예술성, 공공성, 지역정체성 측면에서 가치 발굴의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단계이다.



3. 작품 유지보수

1) 정비 체계

- 훼손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경우 먼저 작가에게 연락을 취해 작품 상태를 알려야 한다. 작품 보수를 작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작가에 의한 작품 보수가 어려운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사전에 보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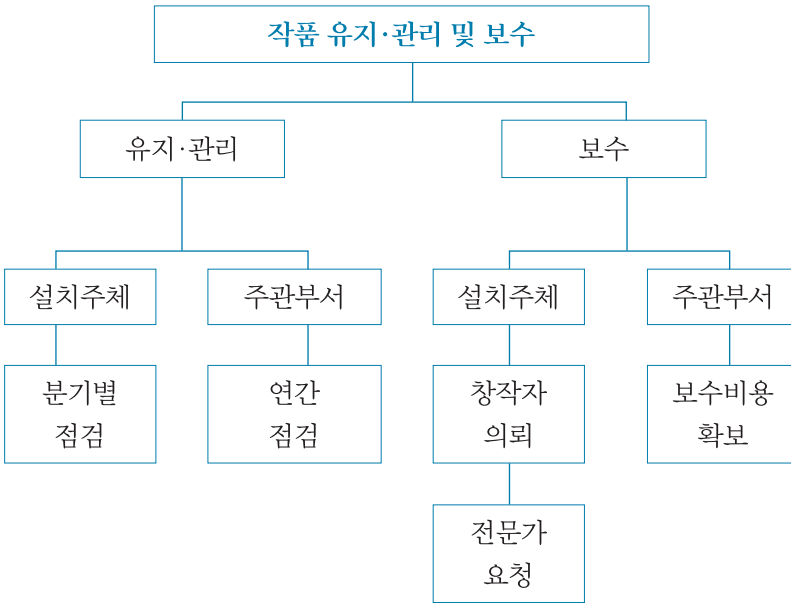


표 6 작품 유지관리 체계도

제주 공공미술 사례 10

고민석, 첫알오름 위령탑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59707(첫알오름 탄약고 인근)



제주 대정의 첫알오름 학살터의 위령탑으로 초기 설립은 작가의 석조 병풍형과 제단 형식으로 계획되어 설치되었던 것이나, 백조일손 유족회에서 병풍형 조형물 앞쪽에 현재의 위령비를 세웠다. 조형적으로 병풍형 석조 조형물은 독특하고 편안한 구조로 위령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중앙에 수직으로 세워진 위령비와는 양식적 거리를 두고 있어 조화를 이루지는 못한 실정이다. 위령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담고 기능하지만, 초기 계획과 부가적 조형물이 설치될 때의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위령비 형식에 대한 양식적 논의나 특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찰할 필요가 있으나, 원안의 계획과 부가적 조형물의 결합에 대해서는 공공 상징물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보다 조형적 가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관리 책임 주체 및 내용

- 1차 책임자(설치 주체)는 분기별 점검을 통해 작품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지 보존에 관해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분기별 작품 점검을 실시한 뒤 서식(관리대장)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 2차 책임자(주관부서)는 설치 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주도 내 공공미술에 대해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존/복원 우선순위

- 작품의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

구분	내용
1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음
2	적절한 곳으로 작품의 위치 이동이 필요함
3	협력 기관이 보존, 복원에 기금을 지원함
4	미술작품의 예술적 우수성이 증명됨
5	보존/복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작품의 상태가 악화 또는 손실될 잠재성이 있음
6	수리를 통해 미술작품의 수명을 현저하게 연장할 수 있음
7	보존/복원이 다른 예술품의 수리와 효율적으로 결합될 수 있음

8	시대의 경향을 나타내는 소수의 사례에 해당됨
9	보존/수리가 제주도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기준에 부합함
10	미술작품이 다른 예술작품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 독특함을 지님

표 7 미술작품 보존/복원 우선사항

(참조: ArtsWA, Art Care: Collection Management Policy for Washinton's State Art Collection(2013) p.14-15)

철거

1. 원칙

1) 철거 정책

- 공공미술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전이나 철거를 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철거는 작품을 회수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미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술품을 철거할 권리를 보유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전, 교체, 해체 또는 철거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 제시된 공공미술 작품의 생애주기 이전에는 작품을 제거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작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작품을 철거하기보다는 정비하거나 이전하는 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철거 기준

-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될 경우 작품의 철거를 고려할 수 있다.
 - 예술작품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
 - 과도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예술작품의 상태가 금전적 가치를 초과하는 복원을 요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문화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설치된 장소가 더 이상 대중이 접근할 수 없거나 안전하지 않은 경우
 - 예술작품에 대한 대중의 반대가 지속적이고 압도적인 경우
 - 예술가가 작품을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

2. 과정

1) 철거 과정

- 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
- 다만, 안전 등의 문제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는 작품이 철거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해야 하며, 작품이 철거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공공미술 목록 양식의 정보
 - 작품 상태에 대한 상세 보고서 및 사진
 - 제목 또는 기타 소유권 문서의 사본
 - 작품의 평가액
 - 철거 정책의 기준에 따른 근거
 - 언론 또는 공공적 이슈에 대한 대응책
 - 제안된 철거 방법(판매, 이전, 경매 또는 처분)
 - 철거에 대한 대안과 비용
 - 해당 작품의 창작자에 대한 통지 기록
 - 본 특정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제한사항에 대한 법적 의견

2) 철거 방법

-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철거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특정 경우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예술작품 재배치(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함)
 - 공개 전시 및 후속 보관
 - 작품 판매 또는 교환

책임연구 박남희
공동연구 이승미, 이승수, 김선주, 박소진, 이시은
보조연구 이혜령, 이은혜
현장조사 강태환, 고민성, 김선영, 김남훈, 라군선,
우빙빙, 황준용
연구지원 김화자, 한나영, 진희연
편집·디자인 신경숙
인쇄 피크픽

자문 강문석, 강민석, 고순철, 김기대, 김연주,
김영민, 김용철, 김윤희, 김장언, 김해곤,
박경훈, 박능생, 박수진, 이광준, 이웅배,
유창훈, 윤재갑, 성창학, 송창훈, 천혜원,
최창희, 하석홍, 황석권

발행인 이승택
발행처 제주문화예술재단
발행일 2021. 12.15
ISBN 979-11-974067-5-1(93600)

이 책은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고 공공예술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